

<환 영> 샬롬^^ 12월의 첫 날이며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2013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서로 나누어봅시다.

<찬 양> ㄱ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말 씬> 행 14 : 1 ~ 7

1. 바울과 바나바의 두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나타난 반응의 명암이 분명하게 갑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행14:1~2)
2. 성경은 복음에 대해 어떤 이에게는 보배가 되고, 다른 이들은 거치는 돌이 된다고 합니다.(벧전2:6~8)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벧전2:8) 전도의 주도권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다녀왔던 선교를 돌아보며 선교에 대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발표해봅시다.
3. 본문의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사이의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두 사도는 어떻게 격렬한 저항과 핍박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행14:3)
4.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고전4:2) 그 충성의 기초이며 근거는 무엇입니까?(고전4:1)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받았던 고난과 예수님 믿음에 의지하여 극복한 경험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봅시다.
5. 두 사도의 전도 중 격렬한 핍박 속에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고 있습니까?(행14:5~7) 비슷한 현상을 이삭의 우물 판 사건과 비교하며 살펴봅시다.(창26:17~22) 이삭이 판 우물이 후손들의 유산이 된 것처럼, 유럽 곳곳의 전파된 복음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6.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찾아올 때, 이후에 돌아보니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하여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서로 결단하며 발표합니다.

<기 도>

1. 개인/가정: 우리를 흔들리고 무너뜨리려는 세상에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잘 버티며 나아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전진하도록
2. 교회: 강단의 말씀사역과 영적 지도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The bridge of Grace’ 새벽 루기 강해와 31차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하여
36기 예람제와 새가족들의 양육을 위해
주일학교 교사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겨울선교를 잘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3. 나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민족의 청년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부흥하도록
남북 통일과 북한 교회를 위하여

<설교요약>

1. 복음은 고난과 함께 전파되어 명암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복음이 점차 이방 땅 깊숙이 불붙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고난과 역경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은 고난의 파도를 넘어 땅 끝까지 점점 불길이 되어 퍼져갑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흑암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방주이며 보배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빙거가 됩니다.(14:1,2)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보배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벧전2:6~8) 왜 이렇게 명암이 나누어집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벧전2:8)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교회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2. 역경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다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 원문에는 있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삽입되면 2절과 3절이 조화로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격렬한 저항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두 사도는 어떻게 격렬한 저항과 핍박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용기이거나 유난스러운 열심 때문일까요? 성경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뒤 이어 등장하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등장한 이유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던 시대에 사도들의 복음은 신적인 권위가 있으며, 하나님이 전하라고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에서 깊은 원리 하나를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경이 몰아치고 고난이 오면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합니다.(고전4:2)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란이 길어지다 보면, 교회 안에 영적인 피로현상으로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분란을 일으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격려합니다.(고전4:1)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경륜이란 하나님의 오묘한 조각조각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충성의 기초이며, 두 사도가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곳곳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의 의지나 배짱을 기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여 인생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3. 복음의 불씨는 고난과 함께 들끓처럼 번져 유럽의 복음 지도가 된다

놀랍게도 극렬한 핍박에도 복음의 불씨는 온 땅에 들끓처럼 번져갔습니다.(14:5~7) 사도들은 쫓겨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들이 쫓겨 다닌 지역이 유럽의 복음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파자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쫓겨 가 다른 지역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점점 우물이 만들어져 갔습니다.(창26:17~22)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그 우물들은 후손들의 유산이 되어 마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사도가 비바람 속에서도 오래 머물러 증언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찾아올 때,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자국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고백을 기초로 하여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악보 1

주가 보이신-생명 의-길-나 주님과-함께 -
 상한 마음도-리며 - 주님-앞에 - 나-가리 -
 나의 의로움-이 되신주 - 그 이름-예수 -
 나의 길이되- 성 이-름-예-수 -
 나의 길 오직그-가 아-사나니 - 나를 강 령하신-후-
 에 - 내 가 -경금 같 이 나-아오리 라 -

생명 주께 있네

Daniel Gardner

생 명 주께 있 네-능 령 주께 있 네-
 소 망 주께 있 네-주 안 -에있-네 생
 네 -생명 다 해-주 찬 양-하 리 -
 형용 다 해-주찬 양-하 리- - 내 생 명-다 해
 내 형용-다해 모 든소 망 주님께 -D.C.포
 게 --있-네 주 게 -